

寄協뉴스

이우복사무총장 귀국

- 訪日成果 지대 -

기협 이우복사무총장이 9월2일 일본을 방문 지대한 성과를 가지고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총장의 방문성과로서

1. 보사부에서 요청한 분뇨종말처리장 문제=일본에 요청서를 정식으로 내는것이 선결문제다. 혼다박사가 다시 내한키로 하고 현재는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측에 아그리를 추진중이다. 혼다박사 내한시 보사부명의로 분뇨처리장설치장소를 결정키로 하고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전체지원보다 한국에서 구입가능분만을 지원하자는 의견.

2. 전남 병원선문제= 일본선박진흥회 회장에 교섭이 성립,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지시했다.

여비, 기타 수리비도 제조회사나 사사가와재단에서 부담토록 요청하였다.

3. 기협건축비원조 계속 문제= 고도의료부장면담시 간디스토마 조사관계에 대하여는 예방의학관계로 전환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4. A.P.C.O. 회의 한국시찰문제= 일본에서 A.P.C.O. 회의가 끝나는대로 타이랜드 보건차관, 대만 보건청장등이 함께 내방예정이며 한국대표도 대만시찰을 할 계획이다.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시찰자명단을 9월 20일까지 일본에 통보키로 했다.

일본 기생충예방회 직원내한

森雄 - 씨외 7명

일본 기생충예방회직원 모리(森雄-) 씨외 7명이 기생충 대책에 관한 연구토의차 지난 9월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내한했다.

서울의 기협본부및 지부검사소, 경북의 지부검사소및 경북의대 기생충학교실등을 각 2일간씩 시찰하고 경주관광을 즐길 예정이다.

그다음 부산으로 직행,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를 시찰코 사업현황을 연수한다.



일본 기생충예방회 검사부장 모리(森雄-) 씨외 7명이 지난 9월 16일 내한, 기협본부회의실에서 변장순 사업부장으로 부터 한국기생충박멸사업현황을 부리핑받고있다.

시민 기생충관리 홍보사업계획

- 기협 서울지부
75년도 종합사업 -

기협 서울지부는 기생충퇴치는 기생충절환특유의 만성병적 특성과 시민

街頭檢診활동



기협 서울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부터 10월 4 일까지 명동입구, 을지로입구, 시청앞등에서 가두무료 기생충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①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가두검진반을 격려하는 金鍊珠 한국기생충박멸협회장.

② 모여든 서울시민들에게 기생충박멸계몽상담에 열중하는 검진반원들.

③ 많은 시민들이 무료검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즉석에서 검변투약하는 검진반원들.



다수의 재래식 생활방식, 영농방법등에 착안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감안 적극적 홍보사업을 전개 자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무료검진, 무료상담등을 중점·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방침= 1. 라디오 지하철등에 제몽선전, 광고실시.

2. 무료검진반 편성, 무료검진 무료상담 투약등 병행실시.

3. 제몽전단을 제작 시민에 배부

하여 선전사업의 성과를 거양한다.

4. 홍보환동기재를 완비하여 홍보기능을 보강한다.

5. 소요예산은 영달된 시보조금과 당초 책정된 예산에서 충당.

세부실시 계획= 1. 라디오방송 30일간.

① 스포츠방송(20초) ② 방송회수, 1일3회.

2. 지하철 철도광고

① 지하철광고(차내광고) ② 철도광고(역구내 홍보관계광고)

3. 가두점진

시민이 운집하는 도심지 변화가에 가두무료 점진반을 설치하여 무료점진을 실시하고 회중, 12지장총 감염자에는 무료투약하고 계몽교육 및 상담에 응하며 상담자에게 계몽전단 배부.

① 장소 명동입구(코스모스 백화점앞), 을지로 입구(구내무부앞), 시청앞 뉴코리아호텔앞)

4. 개설기간=75. 9. 29-10. 4 일

① 점진반 편성, 자체직원및 보건소 파견기사를 동원 실적을 올린다.

② 인원-병리기사(검사원) 2명, 행정요원(기록) 1명, 조작원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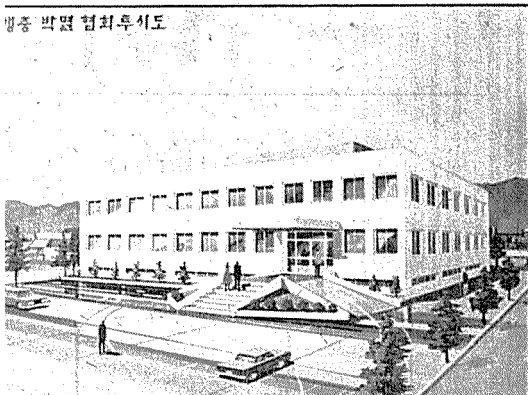
3. 장비-점진차(가두방송) 현미경, 파라솔 계몽전단.

본관신축공사 30% 진척 -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지난 7월 9일 국민기생충 예방센터인 본부및 서울시 지부 검사소 신축건물을 기공하여 현재 지하실 작업을 끝 마치고 공정30%가 진척(9월19일현재),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기생충 박멸 협회후서도



기생충계몽 T.V좌담회 개최

기협전남지부, 문화방송프로에



기생충 선전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기협 전남지부에서는 광주 문화방송 T.V국에서 기생충 계몽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류의 적인 기생충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담회에는 전남지부 서인종사무국장, 이창수 전남 보사국장,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수 김병우씨등이 참석했는데 토의내용은 1. 기협에서 하는일을 크게 나누면 어떠한 사업으로 구분되는가.

2. 특히 집중적인 사업으로 학생기생충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

3. 이러한 많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협의 시설규모등이 설명되었다.

기협 제 5 차 홍보활동

무의촌 낙도주민

기협과 해군 홍보단에서 매년 실시하고있는 홍보활동계획의 일환으로 제 5 차의 홍보활동반이 해군홍보선에 승선, 무의촌 낙도주민 건강을 위하여 무료검변및 투약과 기생충계몽영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

-유괴범의 만행을 철저히 규탄하자

◎...「날러라 새들이 푸른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벌판을, 오월은 푸르고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확실히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떠날들 제 2세 국민, 어린이가 힘차고 씩씩하게 자라야 우리나라의 장래가 희망찬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일-

◎...지난 8월18일부터 25일 사이에 일어난 부산 어린이 연쇄유괴 사건은 전국의 부모들에게 「드라큐라」적인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5명의 어린이를 유괴해 죽이거나 죽이려 했

다. 더구나 나 어린 10세의 어린이를 추행까지 했다니 천인(天人)이 다같이 분노(共怒)하리라-

◎...「유괴 살인등 범죄의 마수에서 새싹을 보호하자」 한국부인회 회원들이 궤기, 어린이 보호 「캠페인」을 벌여 가두계몽과 악랄한 유괴범의 만행을 규탄했다-

◎...장차 우리나라를 질머질 제 2세국민들, 유괴범의 만행으로 부터 철저히 보호하자! 그리하여 밝고 밝은 제 2세 국민으로 키우자! 그러므로서만이 우리나라의 밝은 장래가 약속되는 것이다.

화상영등 무의촌 낙도주민들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남검사소장을 검사요원으로 한 기협 홍보반은 9월 8일부터 28까지 21일간 초도 마물도등 전남.경남 일대의 20개 도서를 돌며 진료할 예정인데 대상인원은 42,594명으로 잡고 있다.

서정쇄신에 대한 각지부 서무과장 교육 실시

한국기생총박멸협회에서는 지난 8

월 16일,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국가안보 국민총화 단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체대상업무 개선책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서정쇄신 업무를 주임,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솔선 업무수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각지부 서무과장들에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지부 홍보활동 강화

기협 전남지부 서인종 사무국장은 지난 8월10일 오후 8시35분 기협 선전계몽 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기독교방송 「도민의 광장」시간에 좌담회를 개최, 기생총계몽에 다대한 성과를 견우었다.

그런데 좌담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1. 기협의 설립목적
2. 기협새청사와 검사기재 도입관계
3. 사업계획과 춘계 학생검변결과
4. 지역별 감염을 격차등 여러가지가 토의된

